

# 2026 소상공인 분야 정책설명회 자료 (3.16)

## 목 차

1. 향후 소상공인 정책 방향 ..... 1
2. 핵심 메시지 및 3대 전략별 추진 과제 ..... 2
3. 세부 추진 과제 ..... 3
  - (1)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 3
  - (2)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전을 신속히 이끕니다 ..... 8
  - (3) 소상공인 정책, 쉽고·빠르고, 효과적으로 거듭납니다... 13

# I. 향후 소상공인 정책 방향

## □ 소상공인 대·내외 경영 환경 분석

- 내수는 회복 추세\*이나, 금융부담\*\* 및 고정비용 증가, 자영업자 과잉구조 등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 있음

\* 소상공인 연평균 체감 BSI: ('21) 49.6 → ('22) 59.4 → ('23) 64.4 → ('24) 59.2 → ('25) 66.8

\*\* 자영업자 대출잔액(한은, 조원): ('19말) 686 → ('20말) 804 → ('22말) 1,020 → ('25.3Q) 1,072

- AI·디지털을 바탕으로 성장하거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해외 진출에 성공하는 등 우수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긍정적 상황

\* (예시) 감자밭(카페, 제빵 + 온라인 판매) / 육거리만두(음식업 + 해외 진출)

\*\* **청주 육거리소문난만두** : 지역 가게 → 온라인 진출 및 디지털기술 도입 → 해외 수출

⇒ 기존에 추진하던 취약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혁신성·성장성을 지닌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

## □ '26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

- 지역을 살리는 로컬 창업가를 육성하고, 소상공인이 AI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장방안을 마련

-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점포를 자연스럽게 찾아오도록 전통시장·지역상권의 고유한 매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 내수 활성화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소상공인 판매전도 기획

- 취약 소상공인 대상으로 선제적인 정보 제공, 정책 지원을 추진

- 위기 단계부터 폐업, 재취업 단계까지 범부처 협업 기반으로 지원

- 소상공인 수요가 높아지는 사회안전망 분야 정책도 기획·마련

- 데이터 기반 행정,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핀셋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발굴·해소

## II. 핵심 메시지 및 3대 전략별 추진 과제

### 【 핵심 메시지 】

##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도약

### 【 전략별 추진 과제 】

#### 전략 1.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 <1. 장사가 잘 되는 소상공인>

- 지역을 살리는 로컬 창업
- AI·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
- 플랫폼·대기업과 소상공인간 협업

##### <2. 활력 넘치는 지역 상권>

- 문화와 관광이 넘치는 전통시장
- 모두와 함께하는 동행 축제

#### 전략 2.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전을 신속히 이끕니다.

##### <1. 취약 소상공인 적극 지원>

- 위기 소상공인 경영·금융부담 완화
- 재기 소상공인 복합지원 체계
- 새출발 지원센터 촘촘하게 확대

##### <2. 폭넓고 신속한 소상공인 보호정책>

- 소상공인을 위한 삶의 안전망 강화
- 선제적 소상공인 전달체계 구축

#### 전략 3. 소상공인 정책, 쉽고·빠르고, 효과적으로 거듭납니다.

##### <1. 소상공인 정책 고도화>

- 데이터·통계 기반 소상공인 지원
- 대상별 정책정보 맞춤형 안내

##### <2. 소상공인 확실한 행복 (소확행) 프로젝트 >

- 현장 애로사항 발굴·해결

### Ⅲ. 세부 추진 과제

#### 1 소상공인과 상권의 매출이 올라갑니다.

##### 1. 장사가 잘 되는 소상공인

###### < 지역을 살리는 로컬 창업 >

###### □ 추진 배경

- 새 정부는 국정과제(#61)에서 유망 소상공인 육성을 강조('25.9)
  -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기회형 창업을 유도하고 혁신성을 띤 새로운 유형의 소상공인 육성 정책 추진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로컬창업 활성화 방안 제시('26.1)
  - \* 정부가 창업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나누는 체계 구축,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어디서든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 향후 로컬창업가 육성 방안

- (로컬창업가 발굴) 오디션 방식으로 유망 로컬창업가를 발굴, 자금, 전문 멘토링 등으로 준비된 창업 지원('26. 1천개사)
  -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하고 창업 정보·교육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로컬창업 타운 확대('25. 8곳 → '26. 10곳)
  - 권역별·분야별로 선배기업,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멘토단 구성·운영
- (성장기반 강화) 로컬창업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투자유치부터 자금지원, 기술개발, 글로벌 판로개척까지 전주기 지원
  - 우수 로컬상품이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수출패키지 지원 및 해외판로 다변화 추진('26. 100개사, 최대 1억원)

## < AI · 디지털 기반으로 강해지는 소상공인 >

### □ 추진 배경

- 소상공인의 AI 인지도는 높으나, 기술 도입에 대한 어려움(69%)과 실제 학습 기회의 부족(47%)으로 도입 및 활용이 저조\*

\* 중기중앙회, "서울시 소상공인 AI 인식 및 활용수준 실태조사"(25.11)

- AI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23년 서비스업 생산성(백만원 국가데이터차) : (1~4인 사업장) 20.3 vs (100인 이상 사업장) 59.9

### □ 향후 정책 방향

- (AI 교육) 수준별 · 업종별 교육, 전문 컨설팅 등 AI 역량 강화

- (AI 활용 교육) AI 개념, 도구·활용법, 등 입문 수준의 교육부터 실전 콘텐츠 제작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교육\* (최대 7.2+@만명)

\* (온라인) 지식배움터, 유튜브 채널 통해 소상공인 누구나 물리적·시간적 제약 없이 참여 (오프라인)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실습·질의·응답 방식의 양방향 밀착 교육

- (비즈니스모델 구체화) AI 전문기업(예) 네이버, 카카오, 뽀빠리 등) 및 스타트업과 함께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2천명)

- (디지털 역량강화) 우수사례 발굴, 스마트 기기 보급, 거점 확대

- (우수사례 발굴) 디지털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공모델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업종별 우수사례 발굴(500건 내외)

- (디지털 기기 보급)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에 스마트 기술\* 제공

\* 주문(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SW) 등

- (디지털 거점 확대) 디지털커머스 인프라인 '소담스퀘어'를 비수도권에 확대 설치(6→10개)하고 지역 내 거점기관으로 기능 확대

## < 플랫폼 · 대기업과 협업한 소상공인 판로 확대 >

### □ 추진 배경

- 유통 환경은 오프라인 →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숏폼 플랫폼 등 멀티 플랫폼 환경이 확산
- 정부-플랫폼-소상공인 간 역할을 분담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의 지원 체계\* 마련(‘25)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 분야별 타피어 민간 플랫폼사와 협업을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

### □ 향후 정책 방향

- (플랫폼 협업 개편) 기존 종합(식품 外)/식품/패션·뷰티/숙박·음식점 분야를 “식품/홈·리빙/패션/뷰티” 4대 육성 분야로 재편
  - 1인 가구 증가 및 맞춤형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홈·리빙’ 분야 확대
  - 수출·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비재 중심으로 ‘패션’과 ‘뷰티’를 분리하여 섬세한 지원 추진
- (단계별 성과지원) 소상공인 역량 수준·성장 가능성에 따라 맞춤 지원
  - 1단계 기초컨설팅(3,500개사) : 플랫폼 보유 데이터 기반 컨설팅 및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사별 온라인 기획전 등 지원
  - 2단계 브랜드 정립(700개사) : 판로촉진 비용(검색·노출광고등)지원과 플랫폼사별 특화 마케팅 프로그램(콘텐츠 제작, 할인 쿠폰 등) 운영
  - 3단계 브랜드 홍보확산(30개사) : 플랫폼사별 특별 기획전, 플랫폼 보유채널(백화점, 홈쇼핑) 연계 지원, 피칭대회 개최 등

## 2. 활력 넘치는 지역 상권

### < 문화와 관광이 넘치는 전통시장 >

#### □ 현황

- 전통시장 수 1,403개(점포수 22.4만개)로 최근 5년간 소폭 증감, 전통시장 유입 고객은 감소되는 추세
  - 다만, K-컬처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특색있는 경험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특성은 로컬의 진수인 전통시장에게 기회
- ⇒ 온라인·대형마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전통시장만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경쟁력 강화할 필요

#### □ 향후 정책 방향

- 전통시장 고유 정체성은 살리면서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개발
  - 개별시장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맞춤형으로 지원→ 특색 있는 시장 매년 50개 내외 육성('26년 신규 52곳 선정 完)
  - \* 상인회의 자가진단 통해 관광연계형(관광객 유입 많은 시장), 로컬 커뮤니티형(주민 일상 소비 기능 시장), 문화 거점형(지역 공연·전시 경험 많은 시장) 분류

! (1913송정역시장, '느린먹거리 부각가) 김부각을 한 입 간식으로 재해석하고 세련되게 마케팅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시장으로 유인

\* 매출액 : ('23) 2.3억원 → ('25) 9억원 (291%↑)

- 시장 고유의 스토리 발굴, 매력을 지닌 핵심 점포 육성 등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관계부처·지방정부 사업과 연계로 관광요소의 확장성 강화
  - 문체부 K-관광마켓·야간 관광특화도시, 지방정부 관광정책 등과 연계 강화하여 시장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

## < 모두와 함께 하는 동행 축제 >

### □ 현황

- 중앙·지방정부,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를 지속 개최

### □ 4월 “모두의 동행축제”(4.11~5.10) 추진 방향

- 지역 소상공인 단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소규모 민간단체 행사와도 협업하여 모두의 행사로 기획
  - 전국 판매망을 보유한 민간 유통업체 등과 신규 연계하여, 팝업스토어 개설, 동행축제 기획전 등 행사 다변화
  - 기존 온라인 판매 채널에 숙박·여행 플랫폼을 신규 추가하고, 백년가게\* 방문 “원데이클래스” 등 신규 프로그램 운영
    - \* 경북 봉화 ‘봉화유기(유기), 경북 안동 ‘명인안동소주(시음), 경북 경주 ‘한국토기(도예체험), 제주 ‘담화헌(제주흙옹기), 인천 ‘새누공방(한지공예), 서울 ‘남해공예사(나전칠기) 등
    - ※ (백년가게)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이상 소상공인
- 지역축제(전국 50개)와 연계하여 지역의 특색이 살아나도록 준비
  - 지역축제 행사장에 동행축제 제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공연 개최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참여 소상공인 매출 제고
  - 국내·외 관광객을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유입, 지역소비가 이어지도록 지역연계 여행상품 신규 운영
- 뷰티, 패션, 식품, 한국 전통문화 상품 등 K-culture 중심 우수 동행축제 제품 발굴·선정 및 판촉 지원

## 1. 취약 소상공인 적극 지원

## 〈 위기 소상공인 경영·금융부담 완화 〉

## □ 현황

- 소상공인 230만명(연매출 1억원 400만원 미만, '25.12.31일 이전 개업 등)에게 1인당 25만원의 경영안정바우처\*를 지원(총 5,790억원)('26.2.9~)
  - \* 사용처(총 9개) : 공과금(전기·수도·가스), 4대 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설명절 이전(2.9) 접수이후 단기간(3.10 17:00일 기준)에 256만명의 신청·접수 → 181만명 지원대상 선정 및 4,473억원 지급\*(집행률 77.2%)
    - \* 국세청 과세정보 연계 자동검증 체계 구축으로 별도서류 제출 없이 평균 3일 이내 지원 결정 → 민원 대기시간 획기적 단축
- 성실상황\* 및 위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3.4조원 공급
  - \* 인센티브 확대 : (대상) 대출 완납자 포함, (대출한도) 1억원→2억원, (금리) 0.3%p ↓
  - \*\*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전환 및 절차 간소화
  - 비수도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60% 이상을 배정하고, 0.2%p 금리 우대도 제공

## □ 향후 정책 방향

- 영세 소상공인을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매출액 중심에서 소득·자산 등을 반영한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정책 효과성 제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선착순' 문제를 해결,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여유롭게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금 신청·평가 프로세스 개선
  - 정보가 부족해 필요한 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AI·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정책자금 길잡이' 서비스도 구축

## < 재기 소상공인 복합지원 체계 구축 >

### □ 현황

- 전체 대출 소상공인 대상 위기징후 모니터링\*(대출·신용정보 등 활용), 부실 징후 소상공인 경영진단 및 맞춤형 지원 연계('26.3월~)

\* 정책금융기관(소진공·지신보), 은행권 등 본격 시행(3월말~)

- 재기지원 상담\* 시 채무조정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재기 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지원시스템' 구축·운영('26.3~)

\*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복합지원 시스템(금융위 등)과 재기지원(중기부) 정보화시스템 연계

-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폐업 비용\* 및 취업\*\*·재창업\*\*\* 지원 확대

\* 점포철거비 한도 상향 : ('25) 최대 400만원 → ('26) 최대 60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 : ('25) 2,000명 → ('26) 3,000명

\*\*\* 사업화자금 자부담 비율 축소 : ('25) 100%, 최대 2천만원 → ('26) 50%, 최대 1천만원

### □ 향후 정책 방향

- (법령) 경영위기 소상공인 선제적 지원 및 다수기관의 복합지원 협력 체계 구축 관련 「소상공인법」 연내 개정 추진(국정과제 61)

- (지역거점) 소상공인새출발지원센터(78개소, 소진공) 활용한 재기 소상공인 복합지원, 기관간 상호 교육 등 협력체계 지속 강화

\* 재기지원 종합상담 거점(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확대('26.1) : 전국 30개소 → 78개소

- (데이터) 폐업 소상공인 재기 관련 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를 위해, 국가데이터처 협업 통한 통계 구축\* 등 검토

\* 소상공인 폐업 후 취업·재창업 등 재기 경로 파악, 재기지원 성과 검토 등에 활용

## < 새출발 지원센터를 촘촘하게 확대 >

### □ 현황

○ 경영 위기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새출발 지원센터」 30개소 운영('25.5월)

○ 새출발지원센터를 78개로 확대하는 정책방향 발표\*('25.10월)

\* 48개소 추가 개소('26.1월), 30개소→78개소 확대 운영

### □ 새출발 지원센터 지원 내용

○ (일반상담)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재기지원사업 안내, 채무조정제도 안내(준비서류, 절차 등) 및 채무조정 유형(공적·사적) 분류 등 기초상담

○ (심화상담) 금융·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실현가능한 변제계획 설계, 채무조정기관 연계 및 채무 해결방안 등 제시

- (공적채무조정) 채무조정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전주기(법원 접수 ~ 회생결정·파산선고) 지원·관리(행정비용 지원)

※ 서울회생법원('25.5월), 수원회생법원('25.12월)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패스트트랙 신설 → 향후 전국 회생법원으로 확대 검토

- (사적채무조정)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지원 등

### □ 향후 정책 방향

○ 대출 소상공인 위기징후 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지원사업 안내 및 재기·채무조정 등 복합지원(신복위 등) 체계 구축으로 밀착 지원

○ 지역거점 확대를 통해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재기와 개인회생·파산 등 채무조정의 적기 지원

## 2. 폭넓고 신속한 소상공인 보호정책

### < 소상공인을 위한 삶의 안전망 강화>

#### □ 현황

-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 확대 및 폐업 증가 등 자영업 구조변화에 따라 삶의 안전망 확충의 중요성 증가\*

\* 60세 이상 자영업자(만명, 국가데이터처) : ('20) 185 → ('25) 222

\* 폐업(만명, 국세청) : ('21) 82.8 → ('22) 86.7 → ('23) 98.6 → ('24) 100.8

-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법\*\*에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경영안정 이외에도 복지 수준 향상, 출산·육아 지원 등의 주요한 가치 반영

\* 정부·지방정부는 소상공인 복지수준 향상에 필요시책을 실시(제24조②항)

\*\* 중기부장은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제9조8호)  
(‘25.4, 국회통과 → ‘26.6, 시행예정)

#### □ 향후 정책 방향

##### ① 기존 제도 확대·개선

- (고용보험) 소상공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최대 80%, 5년) 지원 확대('24, 3.1만명 → '26, 4.2만명)  
- 또한,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험료 지원방식을 환급(최대 2개월) → 先차감 후 납부방식으로 개선 추진(노동부 협의)

- (노란우산공제) 경영악화로 공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부담 완화\*('26.2), 목돈마련 강화를 위한 공제 납입한도 상향('26.7, 분기별 300만원 → 연 1,800만원)

\* 해약환급금에 대해 기타소득 대신 세부담이 낮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장기납입자 경영악화 요건 완화(직전 3년 대비 수입금액 50% 이상 감소 → 20% 이상 감소)

##### ② 근로자 대비 취약한 삶의 안전망 확충 추진

- 1인 여성 자영업자 육아 및 영세 소상공인 건강 돌봄 지원 등 소상공인 삶의 안전망 사각지대를 단계적 완화 검토(관계부처 협의)

## < 선제적 소상공인 정책 전달체계 구축 >

###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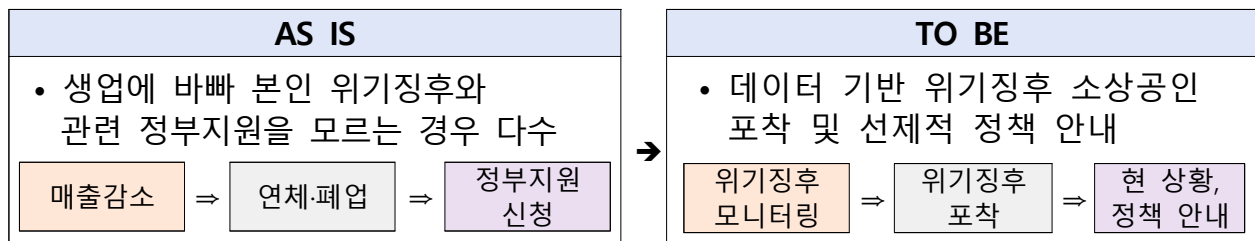
- 정부 지원사업이 매우 다양하고, 관련 부처도 세분화되어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쉽게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정부가 먼저 찾아주는 방식으로 정책 전달체계 개선

### □ 향후 정책 방향

※ 3월말 시행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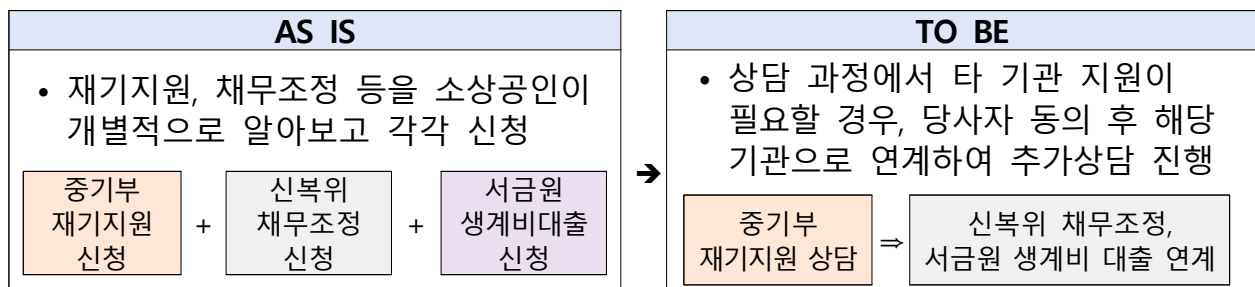
-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 모니터링 → 폐업·상환연체 차주 등  
위기징후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관련정책 안내**(알림문자 발송)

\* 전체차주(약 300만명, 한은) : 소진공지신보(대출차주 약 145만명) 및 민간은행 대출자



- 선별된 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사업과 지역별 소진공 지역센터 연락처 등을 안내하여 유선·방문 상담 유도

- 소상공인이 재기지원 상담 시 타 기관 지원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지원 체계 구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기지원(소진공)-채무조정·서민금융지원(서금원, 신복위) 정보 공유 연계 후 서비스 오픈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지원자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 1. 소상공인 정책 고도화

### < 데이터 · 통계 기반 소상공인 지원 >

#### □ 현황

- 민생경제를 대변하는 소상공인 통계가 언론·시장에서 자주 보도되나, 현재 중기부는 실태조사(년), BSI(월) 중심으로 대외 발표 중
- 그간 소상공인 사업 지원시, “사업자 번호” 중심으로 이루어져 다중사업자\*·부업사업자\*\* 비중 등 정확한 자영업자 현황 파악 부족
  -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예 : 1인이 다수 무인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 \*\*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이 큰 경우(예 : 회사 다니면서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 국정과제(#61)에 소상공인 분석을 위한 국세 DB 활용\* 반영(‘25.9)
  - \* 국세청 자료에 기반하여 소상공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발의(‘25.10, ‘25.11)

#### □ 향후 정책 방향

- 공공-민간데이터 상호 공유체계 구축 및 연계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 통계 적극 분석·발표 ⇒ 소상공인의 의사결정 지원
    - \* (예) 민간 카드데이터 분석 결과 +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정리하여 리포트 발표
  - 장기적으로 매출·비용·부채 등 경영데이터 추이를 최소 시차로 제시하는 「(가칭) 소상공인 대시보드」 구축
  - 다중·부업사업자, 비활동사업자 등을 제외한 자영업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 추진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완료 및 국세청 협업 필요)
    - (기대효과) 정책 대상 자영업자의 정교한 산출 가능시 지원대상 집중 또는 예산 절감도 기대
- ※ 국회와 협력하여 소상공인 실태 파악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

- 소상공인 맞춤형 데이터 활용 정보 전달, 소상공인을 위한 손쉬운 디지털서비스 등 개발·제공 등 소상공인의 데이터 활용 지원

## < 소상공인 대상별 정책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 >

### □ 현황

- 그간 정책 정보가 소상공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고 중심으로 운영
- 소진공이 보유하는 DB를 주로 내부 사업관리 용도로서 활용

### □ 향후 정책 방향

- 홈페이지 단순 공지 및 고객문의 상담(지역센터, 콜센터)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알림으로 전환하여 정책 참여 유도
- 「소상공인 24」 DB에 등록된 가입자 中 개인정보 동의자 대상, 맞춤형\*으로 지원사업 정보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 3.12~)

\* 지원사업 참여이력, 매출액, 지역, 업종,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맞춤형 정책 알림 예시>

- (20~40대 여성 소상공인)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 안내
- (소공인) 중기부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스마트공방 지원' 안내  
↳ (업력 15년 이상) 중기부 '백년소공인 지원사업' 추가 안내
- (지역 소상공인) 중기부 '로컬창업 기업 육성(로컬크리에이터)' 안내
- (◇◇시 음식점업 소상공인) ◇◇시 '음식점 환경개선(조리·환기시설 등) 사업' 안내

- 여성, 청년, 소공인 등 정책 대상별 지원사업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타부처 사업까지 연계 추진

## 2. 소상공인 확실한 행복(소확행) 프로젝트

### < 현장 애로사항 발굴·해결 >

#### □ 추진 배경

- 소상공인이 생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정책과제부터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 과제를 적극 청취하고 발굴·개선 필요

⇒ ▲현장에서 문제를 직접 찾고, ▲실행 가능한 것부터 즉시 해결하며, ▲해결된 성과를 소상공인이 빠르게 체감토록 추진

#### □ 소확행 TF 구성(안)

- (개요) 중기부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산하 공공기관, 협단체 등이 참여하여,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과제 발굴·관리(4월~)
  - (구성) 관계부처,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 업종단체, 상인연합회, 전문자격사단체, 소진공·중기연 등이 유기적으로 참여
  - (운영방식) ▲과제발굴, ▲개선검토, ▲총괄 3개 분과로 구성·운영  
매월 점검회의 및 분야별 개선협의체 추진
- ① (과제발굴) 소상공인 입장을 건의하는 소통창구로 접수센터(소공연) 운영하여 개선과제를 폭넓고 자유롭게 발굴
  - ② (사전검토) 소관 부처, 소진공·중기연 연구원, 외부전문가 등이 정책개선 방향과 현실성을 사전에 검토
  - ③ (총괄회의) 주요 개선과제 발굴·점검, 홍보방안 논의 등

분야별·업종별 과제발굴  
(소공연, 협·단체, 전문자격사 등)

민관 전문가 사전검토  
(중기부, 관계부처, 소진공,  
중기연, 외부전문가 등)

총괄 TF 회의  
(중기부 제2차관 주재)

소상공인 입장을 건의하는  
소통창구로 접수센터(소공연) 운영

성과 창출 가능 과제 선별,  
개선 타당성 검토 등

과제 최종 발굴, 추진상황  
점검, 홍보계획 논의 등